

신안 ‘힐링의 섬’ 자은도 볼거리 더한다

고등전시관·해양자생식물공원·수석정원 등 공사 한창
새천년대교 개통 앞두고 유리 공원, 화훼단지도 조성

신안 자은도는 치유와 휴양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자치부는 섬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선정한 ‘2017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중 자은도를 힐링을 위한 ‘힐 섬’으로 꼽았다.

이국적이면서 아름다운 바다 풍경과 얇은 수심을 가진 ‘백길해수욕장’을 거닐면 ‘해변 산중’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고 서쪽에는 소나무 숲과 하얗고 고운 백사장을 자랑하는 해수욕장이 출지어 ‘명품 도보여행 코스’로 제격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신안군이 여기에 다양한 테마 시설을 건립기로 했다. 볼거리를 확충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게 신안군 구상이다.

당장, 첫 삽을 떤 사업단 세계고등전시관, 도서해양자생식물테마공원, 섬 수석정원, 도서자생식물보존센터·농업종합연

구관 등 5개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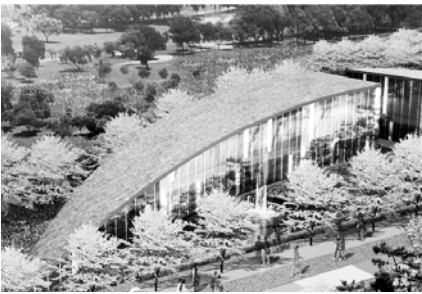
세계고등전시관은 35억원을 들여 자은도 자연휴양림 내 지상 1층(975㎡) 건물로 지어지며 고등 3349종, 1만여점이 전시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등 종류를 볼 수 있도록 꾸밀 예정으로 내년 3월 완공 예정이다.

도서해양 자생식물 테마공원(30.2ha)도 신안군 자은도 백산리 271번지 일대에 29억원을 들여 만들어진다. 공원은 천라이즈 정원, 센트럴파크, 해시계광장, 달빛정원, 바람의 언덕 등을 만들어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섬 풍광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서자생식물보존센터도 국내 외적으로 드문 섬 자생식물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기공식을 한 섬 수석정원(1만575



세계고등전시관 조감도



도서해양자생식물테마공원 조감도

㎡)은 38억을 들여 수석관(450㎡), 정원(2749㎡) 등으로 꾸며진다.

신안군은 지난 2015년 말 수석 등 전시

품 기증 협약을 맺고 내년 말까지 국내 최대 규모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예정된 사업도 다양하다.

신안군은 자은도 백산리 623-7 일대 9만9176㎡ 규모로 한국 분재·유리공원을 조성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군은 오는 2022년까지 100억원을 투입, 분재관과 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으로 지난 5월부터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자은도 일대 1만9835㎡ 규모로 화훼단지 조성하는 계획도 수립해놓고 있다.

신안군은 내년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면 자은도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는 만큼 관광 시설을 확충,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미 작광한 세계 고등전시관, 도서 해양자생식물테마공원, 섬 수석정원 외에도 화훼단지, 한국 분재·유리 공원 등을 조성해 신안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성진기자 sslee@



이문형씨가 함평에서는 처음으로 레드향을 재배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서 아열대 작물 레드향 첫 재배 내년 1월 첫 수확...새 소득작목 귀추 주목

함평에서도 아열대작물인 레드향 재배가 이뤄지면서 지역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나산면 구산리에서 이문형(42)씨가 대표적 아열대 작물인 레드향을 지난해부터 재배, 지역 농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레드향은 한라봉과 감귤을 교배한 아열대과일로, 껍질 색이 붉고 과육 색도 진하다. 껍질이 얇아 벗기기 쉽고 알맹이가 굵고 토종해 식감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12~2월에 주로 수확하며 1주당 40~50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둘 수 있어 고소득 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씨는 제주에서 레드향을 키우고 있는 형의 조언으로 지난해부터 재배에 나서 올해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지원을 받아 1220주를 심었다. 내년 1월 300~400kg을 첫 수확한 뒤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함평의 경우 토양이 비옥해 당도가 높고 일조시간이 길어 제주보다 보름가량 수확을 앞당길 수 있어 재배 경쟁력이 있다는 게 이씨 설명이다.

함평군도 지역에서 처음 키우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함평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떠오를 수 있을 지 관심이 크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지난 12일 열린 ‘2017년 청년활동 결과물 공유대회’는 다양한 청년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올해 추진했던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12개팀 청년활동 결과물 공유대회

영광군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청년지원조례를 만들고 청발전기금을 조성해 청년사업을 발의 뿐 아니라 한 해 추진했던 청년들의 활동을 공유, 더 나은 방안과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있다.

13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2일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에게’라는 주제로 ‘2017년 청년활동 결과물 공유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학교, 청년동아리, 청년도전사업 분야로 나뉘어 사업을 펼쳤던 청년들로 구성된 12개팀 40여명이 참여, 올 해 활동을 돌아보고 수립한 내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들은 그림책 연구 및 재능기부, 공동육아, 올바른 식생활 연구 활동, 마을 자원조사, 도시와 지역청년 협력 활동 등의 성과와 반성, 향후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온천 생각 간절해지는 계절, 해수찜 어때요?

함평 유향석 증기 전통방식
관광공사 ‘겨울 온천’ 선정
영광 찜질방도 겨울철 인기

온천 생각이 간절해지는 계절, 함평 해수찜과 영광 찜질방은 어떨까.

우선 함평 해수찜은 한국관광공사가 ‘따뜻한 여행’을 주제로 겨울에 가볼 만한 온천으로 꼽았다.

함평 해수찜은 손불면 구산리 일대에서 전통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해수에 1300도로 달군 유향석을 넣고 거기서 나온 증기로 몸을 데운 뒤 그 물에 적신 수건을 몸에 덮는 방식이다.

이 수건을 목이나 어깨, 허리에 올리면 문진 근육이 서서히 풀리고 대야에 식은 물을 받아 몸에 끼얹으면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매끈해진다.

영광군이 소금 생산을 하지 않는 비수기(11월~4월)에만 운영하는 찜질방도 가볼만하다.

매일 오후 2~9시까지 운영되며 영광군민은 3000원, 이외 지역민들은 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영광 전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영광군이 직접 찜질방을 건립했다는 점



함평 해수찜을 즐기는 관광객들.

<한국관광공사 제공>

에서 눈길을 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이외 ▲인천 강화 석도모미네랄온천 ▲강원 속초

적산온천 ▲충북 충주 수안보·양성온천 ▲부산 해운대온천 할매탕 등도 추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평택시 토지분양 (오픈)

삼성전자 - 120만평 LG전자 - 110만평
(미군기지 이전) (평택 항)

■ 총 7필지
1필지(200평) x 평당 130만
■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 완료

■ 투자 최적합 - 미래 값어치 평당 30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

- ①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1,413평) 매가 7억
- ②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 ③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 ④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 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

010-6670-9800 010-7384-7800

영광주택 매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직거래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교육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별까지 원스톱 진행

※공동 사무실 쓰실분

- 1. 사무직 정직원 내근하실분
 - 2. 자유 출퇴근 하실분
 - 3. 공동사무실 쓰실분
-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010-6670-9800

010-6670-9800

010-7384-7800